

# 飲料 開發論

張 智 鉉

서울農業大學 教授

本論者は 오늘날 有形・無形으로 外來飲料의 亂入으로 因하여 壓迫感을 強要當하고 있는 在來飲料의 再發見 내지는 再開發을 위하여, 外來産業으로부터 民族産業으로의 轉換을 期待하면서 食品工業協會의 主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1. 飲料開發의 必要性

도리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地政學으로 大陸을 背景으로 이를 이어놓은 半島라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우리民族이 創生된 이래로 新石器文化, 第1次 靑銅器文化를 北方系 文化圈에서 받아 드리는 가운데 成長하였고, 뒤이어 第2次 靑銅器文化・鐵器文化를 華北을 通하여 받아 드렸으며, 곧이어 中國을 거쳐 佛敎文化・儒敎文化를 받아 드리면서 三國時代 新羅統一年間에 걸쳐 이들 外來文化를 제빨리 土着文化에 消化하였고, 그結果 우리 固有文化로 昇華되어 찬란한 生活文化를 創建하였음을 記憶한다.

그러나 그후 外來文化를 받아 드리는 것이 짝

價化됨에 따라 生活文化 全般에 걸쳐 無批判的으로 받아드리는 傾向이 더욱 깊어지면서 及其也는 事大主義思想을 助長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因하여 우리나라는 마치 世界文化의 博物館인양, 世界文化의 終着驛인양, 世界文化의 荷置場인양으로 變하였고, 좋게 말하면 世界文化의 融合處가 될 勝算마저 보이는 듯한 形便에 놓이게 되었다.

最近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樣相이 極大하여 近代化를 앞세우고 無限定한 外來文物의 直輸入을 재촉한 나머지 自我를 잃게 되고, 韓國속의 日本, 韓國속의 美國, 韓國속의 中國等を 彷彿케 하는 生活文化의 混存狀態를 보게 되었다.

그런가운데 근자에와서 多幸하게도 反省期에 접어들기 始作하여 自主的인 立場에서 外來文物의 受容態勢를 定立하고자 이른바 國學의 定立이란 問題가 擡頭하게되어 生命있는 民族文化의 發展의인 樹立을 痛感하고, 外來文物의 受容姿勢를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整備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기 始作하였다.

이는 오로지 우리가 가져야 했을 民族的 價値

觀을 自覺하고, 이를 土臺로하여 外來文物의 輸入에 있어서 보다 批判的이고, 보다 分別있는 消化力을 保障하여 보다 明朗한 民族文化를 樹立코저하는 責任感에서 우러난 偉大한 民族中興의 作業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飲料産業界를 솔직히 自判하여 불래 近代化의 美名下에서 西歐化 내지 日本化의 結果를 招來하지 않았다고 어느누가 壯談할 수 없는 立場임을 自認하여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飲料産業界의 누구를 위한 産業인지 本質적으로 外來産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外國經濟侵略을 傍助하기 위한 産業인지를 알 수 없을뿐더러 民族産業마저 搾들 사이도 없이 그 기를 壓迫하고 있다는 것이다.

自古로 東西洋을 막론하고 飲料로서의 食品學의 價値는 어느 食品보다는 多元的인 要素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그 民族의 深遠한 精神的·物質的 文化發達의 所產으로서 말하자면 民族의 生活哲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民族마다 固有의 飲料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開發에 계속적인 努力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價値는 食生活과도 깊이 關聯되면서 人間과 人間相互間의 對話의 媒介로서 뿐만 아니라 神과 人間과의 對話의 媒體로서 獨特한 立場을 固守하고 있는 까닭에 일차적으로는 그 民族이 處해 있는 地域的 文化圈에 支配되면서, 이차적으로는 氣候風土에 따른 農業構造에 바탕을 둔 食生活의 構造에 緣由되고, 다음으로는 宗教的·精神文化와도 連結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科學文明의 發達에 힘 입어 그의 內容에는 根源적으로 變함이 없이 商品的인 價値가 許容하는 方向으로 生活文化의 變遷이 받아 들일 수 있는 形態로 새로운 科學文明을 消化시키면서 生産樣式에 近代化를 꾀하여 量産化되고 있

을 뿐이다.

여기에 우리는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 이끌어 民族飲料産業으로의 轉換을 促求하는 바이며, 우리가 當然히 하여야 할일임을 自覺하고, 現時點에서 싹트고 있는 國學의 定立이란 偉大한 作業을 外面치 말고 子孫萬代에 빛나는 우리 生活文化를 물려 주기 위하여 飲料産業界가 보다 先導적으로 參與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多幸히도 우리 飲料界는 어느 食品産業界에서 보다는 先導적으로 民族産業으로의 轉換을 마련할 態勢가 充分히 엿보이고 있다. 그間に 받아들인 外來産業을 通하여 生産業體·生産技術·人的資源 등을 確保하였으며, 이를 底力으로 삼아 在來飲料를 消化시켜 近代化 할 수 있는 充分한 能力을 具備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低開發國家가 近代化 할 수 있는 避치 못할 宿命的인 時間을 갖인 것이 事實이나 이를 民族産業으로 昇華시키므로써 그 本來의 使命을 다 하는 것이라 生覺한다.

## 2. 우리나라 飲料의 史的 背景

이로서 飲料開發의 當爲論을 주리고 民族飲料開發에 도움을 고베 고고저하는 뜻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룩한 飲料의 背景을 古文典에 根據삼아 여기에 간추려 고기로 한다.

先史時代는 不問하고 有史이래의 飲料가 무엇이 있는지 正確하게 알수는 없지만自古로 우리나라의 山川이 淸明하여 自然水를 그대로 飲用할 수 있었던 탓으로 天然水가 飲料로서의 飲用의 始發이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祭亭의 飲料로서 五齊중 玄酒라 하여 酒類가 없었던 太古의 習慣에 따라 淸明水가 天地神 내지 祖上님들의 對話를 위하여 利用되어 왔음을 본받아 그의 利用을 짐작할 수 있겠다. 高麗때에는 우리나라의 觀音松上水가 有明하다하여 元나라에서 請한 일도 있고, 甘露를 常用한 例도 傳해지고 있을 程度이고 보면 原始社會 이래의 飲料는 分明히

天然水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와함께 三國時代 初期 이래 米作을 爲主로한 飯食이 普遍化 됨에 따라 文獻上으로는 高麗時代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이로부터 誘導된 熱水·米漿等을 볼 수 있음에 비추어 이들 飲料가 우리나라에 傳해졌던 實質的인 生活化된 最初의 飲料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는 오로지 宿命的으로 米飯의 取食하는 食生活의 構造의 所産이라 짐작되거나와 오늘날의 内外國을 막론한 穀類飲料의 原始的인 形態라 할 수 있겠다.

한편 三國初期 이래 傳해졌던 其他 飲料로는 蘭液·蕙醕等과 같은 香草를 바탕으로 한 飲料들이 傳해지고 있고, 이와함께 新羅인들이 즐겨 飲用하였던 飲料로는 薄荷葉을 點茶하여 茶로 飲用하였던지 그 記錄이 中國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이와같이 香草類를 煎茶 或은 汁을 내어 飲用하는 한편 高句麗社會에서 小獸林王 年間に 처음으로 佛敎를 받아 드리는 가운데 最初로 우리나라에 渡來한 外來飲料로는 綠茶를 들 수 있으며, 이로부터 綠茶의 飲用이 盛해지기 始作되었고, 新羅憲德王 때에는 茶種子를 中國에서 直輸入하여 지금의 智異山一帶에 이를 栽培하게 되었고, 그후 佛敎禮式에는 물론 祭享에는 茶를 올리는 風俗이 싹트게 되어 점차 飲茶의 風이 生活化하게 되면서 부터 茶禮·茶食·茶房等의 발달이 생기게끔 되었다.

우리나라 飲料史를 通하여 볼때 飲茶의 風이 가장 盛하였던 時代는 崇佛思想이 가장 支配의 이었던 高麗社會에서 였다. 그러나 古來로 부터 傳承된 熱水·米漿類等도 綠茶와 함께 飲用되었거나와 綠茶의 常用은 僧侶라던지 上流階級の 獨占物이 되었고, 高麗時代의 國家二大儀式인 燃燈會·人關會에서는 進茶禮로 始作되는等 國家的인 儀式에는 모조리 飲茶하는 例를 낳게 하여 그 慣例는 李朝時代에 까지 미치었다.

이와같이 高麗社會에서 茶飲이 盛하기는 하였으나 國內에서 栽培된 綠茶는 너무 쓰고 品質이 좋지 못하여 中國에서 需要의 大部分을 充當하고 있었고 其他의 特殊한 飲料로는 漢藥材에서 轉用한 香藥草類를 製劑한 湯類가 또한 普遍化하였었다.

그밖에도 高麗社會에서 通用되었던 飲料로는 牛乳·羊乳가 있었고, 이것도 역시 上流社會의 飲料구실을 하였으며, 또한 蜜水가 飲料로서 通用되어 이때부터 우리나라 飲料의 基液으로서의 구실을 하게된 契機가 된것 같이 生覺된다.

李朝時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佛敎를 抑制하기 始作하였고, 常用飲料로서의 嗜好가 우리나라의 食生活에 適應치 못하였던 탓으로 차츰 茶道는 大衆과 遊離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高麗時代 이래의 茶의 飲用的 餘波로 純綠茶가 아닌 飲料에도 모조리 茶의 이름이 轉用되어지고 各種飲料가 活發하게 開發되기 始作하였으며, 다만 綠茶의 飲用은 그 命脈만을 維持하면서 官需用으로 慶尙道·全羅道 一帶에서 部分的으로 栽培되어 李朝全期를 걸쳐 省台茶라는 代名詞로 内外에 傳해졌다.

李朝初期부터의 文獻 가운데에는 高麗時代 이래의 飲料로 짐작되는 餅類飲料인 水團을 비롯하여 麵類飲料로 分別되는 花麵·水麵·筵麵等이 蜜水·五味子茶等을 基液으로한 飲料들이 季節의 飲料로서 活發하게 飲用되기 始作하였고, 特히 常用飲料로서는 蜜水を 바탕으로한 米食類가 普遍化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有史이래의 食生活의 構造에서 빚어지고 高麗時代에도 飲用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始作은 分間키 어려운 製品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在來 飲茶 風習에서 誘導된 香藥類·果實類製品에 茶의 이름이 붙여지는 가운데 五味子茶가 蜜水を 바탕으로하여 普遍化되었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李朝中期에 들어서서 부터의 文獻 가운데에는

藥用茶가 또한 盛하였던지 人蔘茶·蔘茶·松節茶·桃葉茶 등이 알려져 있었으며, 李朝初期이래 盛行되기 始作하였던 香藥類等 飲料를 살펴보면 醱湯을 비롯하여 溫漿湯·水芝湯·杏酪湯·鳳髓湯 등이 있었고, 이들 역시 蜜水를 바탕으로한 飲料들이 大部分이 었다.

이들과 함께 李朝中期에 선을 보이고 있는 飲料 가운데에는 綠茶와 混用되어 茶의 이름으로 알려져서 飲用되었던 製品에는 杞菊茶·枸杞茶·清沓白石茶·薑橘茶 등이 有名하였다. 또한 花葉類를 點茶하여 飲用하는 梅花茶·菊花茶·山查茶 등이 開發되었다.

그밖에도 果實飲料 製品중에는 果實을 蜜水중에 띄우거나, 果汁을 直接利用하거나, 果實을 蜜藏하였다가 直席에서 飲用하는 所謂 直接飲料形 등의 柚子茶·葡萄茶·梅子茶 등의 飲料가 또한 飲用되기 始作하였던 것 같고, 이들에는 梅松子를 茶에 띄워 마시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飲料에 잣을 띄우는 慣習은 아마 이때부터 일런지도 모른다.

또한 李朝中期에는 菜蔬類도 飲料로 利用되었던지 菜蔬類를 蜜수에 混合하거나 蜜藏하였다가 五味子茶에 點茶하여 飲用하는 薑竹茶·辛甘草茶·薄荷茶 등의 開發製品이 登場하기도 하였다. 또 오늘날에까지 우리나라 飲料로서 그 生命이 뚜렷하게 傳해지고 있는 즉 生薑汁·蜜水·五味子茶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水正果類를 비롯하여 類似形의 香雪膏·梨熟 등의 飲料가 活發하게 常用되었다.

그 외에도 當代까지 傳承된 飲料중에서도 獨特한 製法으로 만들어진 所謂 醱酵飲料 가운데에는 食鹽類를 들 수 있고, 木果를 醱酵시킨 木果漿 등의 飲料도 선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李朝中期에 들어서서 飲料의 開發이 活發하였던 背景에는 實用學問의 思想이 물어 익어감에 힘 입은 바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食生活에 알맞는 飲料開發에 대한 執念이 그러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하여간에 李朝中期에 와서 오늘날까지 傳해지고 있는 飲料의 大部分이 根源의 으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飲料資源의 範圍는 食用할 수 있고 飲用할 수 있는 모든 食物資源이 總動員되고 있고, 그 內容이 東西洋의 飲料를 集大化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겠다.

李朝末期에 이르러서는 傳來의 綠茶의 飲用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李朝初·中期이래의 飲料들이 그대로 傳해지는 가운데 蜜水를 바탕으로한 薑茶·橘茶·米食類 등이 對話의 飲料로서 가장 普遍化 된 듯하며, 그밖에도 이 당시 새로 開發된 것으로는 醱酵를 거쳐 飲用되는 柚子醬桃醬等 類似炭酸飲料가 있었다.

李朝後期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이상의 傳來飲料가 역시 傳해졌고 李朝中朝부터의 傳해지고 있던 果實飲料의 製造概念이 더욱 近代化하여 各種果菜類들이 動員되면서 각각 果菜類의 性狀에 따라 蜜藏하거나 糖藏하였다가 蜜水·五味子茶·柚子茶 등을 바탕으로한 花菜類 飲料들이 常用되었으며 이에 利用된 資源으로는 杜鵑花·赤桃·櫻桃·覆分子·梨·橘·地楊梅·수박 등에 미치고 있다.

韓末에 이르러서는 高宗皇帝가 露西亞領事館에서 코피를 마시므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高宗皇帝가 코피를 처음 마신 사람이 되는 同時에 西歐式 飲料가 直接的으로 처음 渡來한 契機가 되었다.

### 3. 우리나라 飲料의 特性

이상은 우리나라 有史이래 韓末에 이르기까지의 文獻上으로 나타나 있는 飲料의 種類를 밝힘과 同時에 飲料의 變遷을 간추려 본 것이다.

이들 飲料를 中心으로 우리나라 飲料의 特性을 살펴 본다면 그 바탕이 食生活의 構造와 密接하게 關聯지어지고 한편으로 氣候風土와도 連結되면서 資源의 適切한 利用과 함께 可用資

源의 開發에 따라 점차 多樣化하면서 近代化로의 接近을 역역히 볼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日本等 같은 生活文化圈에 共存하면서 古來로 부터 共通飲料로 飲用되었던 綠茶의 경우를 살펴 보면 지금까지도 中國·日本에서는 그대로 傳承되고 있는데 反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導入初부터 氣候風土關係로 全羅·慶尙兩道에서만 그의 餘力이 保存되었을뿐 全國적으로 栽培가 不可能하였고, 또한 菜食爲主의 食生活의 바탕 위에서 嗜好에 벗어났던 것이다. 이를테면 脂肪質을 많이 취하거나 氣候에 適應되어 良質의 綠茶를 얻을수 있었던 中國·日本에서는 그의 飲用이 可能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先祖들은 外來文物을 받아 들이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合當한 것은 받아 들여 消化시키고, 適合치 못한 것은 버렸듯이 溫和하고 嗜好에 合當한 方向으로 多元的인 開發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民族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香味를 追求하면서 可用資源의 範圍는 天然水를 비롯하여 穀類·香藥材類 果實類·花葉類·菜蔬類等に 이르기까지 우리의 嗜好에 맞는 資源이 總動員되는 가운데 製法에 있어서도 그의 本質을 살리는 方向으로 多探로운 技巧를 서슴치 아니 하였다.

예컨대 이들 製品들을 通하여 나타난 飲料의 本質을 들추어 볼때, 오늘날의 東西洋間에 一般飲料가 지니고 있는 構造의 性格을 그대로 우리의 飲料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는 點이다. 즉 糖液을 바탕으로 香味를 加하여 그의 香氣의 幻想이 適中하도록 色調를 補強하려는 嗜好飲料로서의 內容을 그대로 赤裸裸하게 들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穀類飲料의 경우를 예를 들어 米食과 같이 구수한 風味를 蜜水에 곁들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 食鹽과 같이 醱酵香味를 蜜水에 곁들이는 등을 볼수 있었고, 또다른 穀類중에서도

麵類·餅類를 同伴한 飲料의 경우와 같이 그들 飲料의 基液을 역시 蜜水로 삼아, 直接·間接으로 色·香을 곁들이기에 赤色·黃色·綠色等 任意대로 꾸며지는 숨씨는 根本적으로 東西洋이 相通하는 點이라 하겠다.

또한 飲料의 基液으로서의 根源을 이루었던 甘味料의 利用을 살펴 고건대 雪糖이 普通化되지 않았던 그 이전에는 蜜을 使用하였거니와 雪糖이 普通化되면서도 이를 제빨리 消化시키되, 混用하는 方向으로 轉用하는 숨씨는 嗜好를 保存·開發하려는 努力에서일뿐 아니라 文物의 進歩에도 서슴치 않고 同調하려는데 인색치 않고 巨視眼的인 哲學이 不滅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4.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飲料哲學이 있었으며, 變遷하는 時代感覺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을 再確認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哲學을 본받아 民族飲料의 再發掘·再開發을 通하여 즉 近代化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生活文化는 永遠히 살고 우리는 後世에 우리文化를 지키고 이끄는 데 責任을 다 하였다 할 것이다.

① 보다 根本적으로 우리 飲料의 本質을 理解發掘하는데 서슴치 말아야 할 것이며

② 우리에게 알맞는 香이 무엇이며

③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맛(味)이 무엇인가를 追求하고

④ 아울러서 우리가 願하는 色調가 무엇이었던지를 파헤치면서

⑤ 變遷하는 時代感覺에 適應할 수 있도록 開發製品으로서의 研究가 뒤따른다면

우리의 飲料는 西歐의인 飲料와 對等한 飲料로 近代化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民族産業으로 發展시키므로써 輸出産業으로의 轉換도 可能할 것이며 이로서 우리 飲料界는 보다 明朗한 앞날을 保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